

보성 울포해양복합센터, 최첨단 해양레저시설 확충

484억 투입 5층에 수심 41.5m 다이빙 풀 조성 MZ세대 겨냥 휴게·체험공간 등 다목적 공간

보성군은 화천면 울포관광지에 총 사업비 484억원을 투입, 대규모 해양 레저시설인 울포해양복합센터를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완공은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성군은 애초 설계에 공간 활용 극대화와 기후 변화 대응 구조 보완을 추가하는 등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면적 9046.62㎡(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는 유지되지만, 설계 보완으로 최고층이 기존 4층에서 5층으로 늘어난다.

서핑과 다이빙 중심의 해양스포츠 시설을 강화하는 한편 MZ세대를 겨냥한 감각적인 휴게공간과 체험공간을 대폭 확충했다.

기존 1층의 야외 풀장을 없애고 실내 서핑장을 3개 라인으로 확대하는가 하면 폭도 12m까지 넓혔다. 이를 통해 동시 수용 인원을 크게 늘렸다.

지하층에 있던 기계·전기실을 지상으로 이전해 해안가 인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위 상승 및 해일 피해 위험을 최소화했다.

서핑 관람객을 위한 라운지 공간도 개선했다. 기존 2층의 실내 풀놀이장은 3층으로 변경했다. 4층에는 수중 스쿠터와 북카페가 들어선다.

5층에 들어설 다이빙 풀은 수심이 41.5m(34m×13m)에 달한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전문 다이빙 전용 공간으로 설계됐다.



다이빙 라운지와 연계된 전문 교육·체험 시스템이 함께 운영된다. 장비 보관실, 교육장, 잠영 공간 등 부대시설도 조성, 국내의 다이버에게 최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한다.

보성군은 울포프름나드 조성사업과 연계, 사계절 이용 가능한 야외광장을 조성하고 버스킹 공연장과 불멍 공간 등 이색 콘텐츠를 추가해 방

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김철우 군수는 “울포해양복합센터는 남해안 해양레저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공간 활용도와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 MZ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객이 사계절 내내 찾는 명소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순천, ‘자전거의 날’ 행사성료 친환경 교통·대자보 문화 확산



순천시는 자전거문화센터 및 동천면 일원에서 자전거연맹 주관으로 열린 ‘2025년 순천시 자전거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용균순천시자전거연맹 회장,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협의회 박주영 회장을 비롯한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문화를 함께 했다.

이번 기념식 행사로자전거 안전이용 및 대자보 실천 문화 확산 캠페인과 동천면을 따라 17km 구간을 주행한 자전거 단체라이딩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중고 자전거 작거래 장터와 수리센터, 어린이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여 호응을 얻었으며, 자전거 자가발전 흡사 탕, 미니 단추 자전거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자전거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광양, 도시민 주말농장 개장 작물 모종 나눠주기 행사 진행

광양시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 2000㎡ 규모의 주말농장을 개장했다고 8일 밝혔다.

광양시는 매년 도시민 주말농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또한 주말농장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시는 지난해처럼 개인별 직접 추첨을 통해 주말농장 이용자 160세대를 선정하고 퇴비 및 비료사용, 경운, 구획정리 등을 통해 기반을 조성했다.

개장식은 지난 1일 열렸으며, 주말농장 이용 시의 유의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주말농장 이용자에게 상추 등의 모종을 나눠주는 행사가 큰 호응을 얻었다. 주말농장 이용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모종, 종자 및 소농기구 등을 직접 준비해 12월 31일까지 자유롭게 경작 활동을 하면 된다.

하진옥 광양시 도시농업팀장은 “매년 주말농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 건강한 먹거리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일상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 “경기 활성화·사회안정 위해 민생 예산 우선 집행”

곡성군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으로 인한 정국 혼란 최소화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곡성군은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경기 침체 해소와 지역 사회 안정을 위해 민생경제 예산을 우선집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곡성군은 우선 민생 안정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고 이미 지급된 민생

활력지원금 사용을 독려한다.

또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의 조속한 지급 등을 요구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현장 청취해 지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 취업계층 집중 보호 활동을 병행하고 산별 임금 단계에 따른 예방 활동 강화, 재해 위험 지역 수시 점검, 공직기강 확립, 선거 중립 준수를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한다.

조상래 군수는 “어려운 때일수록 군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군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군정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안정만이 가장 시급한 행정의 사수”라며 “모든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곡성=홍병백 기자

순천, 청소장비 현대화...쓰레기 수집·운반 체계변화 시도

미래 도심팽창 대비 혁신적 청소정책 발굴 추진

순천시는 현재의 청소환경을 극복하고 미래의 도심팽창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장비나 운영체계 등을 현대에 적합하게 만들어 혁신적인 청소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장비의 현대화 ▲청소구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변화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 방식 시범운영으로 청소환경을 전면적으로 바꾼다는 전략이다.

시는 우선 지난 2월, 6억 9000만원을 투입해 ‘저상형 안전 청소 차량’을 전면 도입해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했다. 현재 저상형 안전 청소 차량은 13대가 운행 중이다. 4월에는 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운 도심 골목길 청소를 위해 ‘골목수거



삼륜차’ 6대를 구입하여 골목반 환경미화원의 청소 기동력을 높이고, 자차나 손수레로 쓰레기를 옮기던 청소 환경을 개선했다. 삼륜차는 현재 13대가 운행 중이다.

또한, 6월까지 환경미화원의 폐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수직형’으로 바꾼다. 이외에도 하반기에는 유동 인구와 먹자골

목이 많은 지역에는 ‘노면 진공청소기를 도입’하여 담배꽂초와 전단지 등으로 지저분한 거리를 신속하고 깨끗하게 청소할 계획이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손과 팔목 관절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시는 공동주택의 신속과도심의 팽창에 따른 청소 범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하고 30년간 지속된 문전수거 방식을 개선하고,거점수거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비의 현대화와 청소구역 및 체계 변화를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거점수거 방식을 시범운영 할 예정”이라며 “이번 장비의 현대화와 체계 변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도시의 팽창 등으로 청소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구례 ‘전국 남녀궁도대회’ 성황리에 개최

전국 궁도인 900여 명 방문... 갈고 닦은 실력 발휘



구례군은 올해로 개정 101번째를 맞는 봉덕정에서 제81회 지리산남악제 기념 제63회 전국 남녀궁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900여 명의 궁도인이 참가하여 첫날은 단체전, 둘째 날과 셋째 날에서는 개인전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 결과 단체전 우승은 함안군 가야정에서 차지했으며, 개인전 장년부는 진도군 장덕정 김민석, 여자부는 문경시 문경새재정 성경은, 노년부는 성남시 분당정 이수일 선수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보성, 장내 기생충 무료 검진 군민 대상 18일까지 실시

보성군은 오는 18일까지 ‘5대강 유역별 위험지역 주민 기생충질환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장내 기생충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검진을 희망하는 모든 보성군민이며, 체변을 통해 장내 기생충 감염 여부를 진단하게 된다.

특히, 장내 기생충 가운데 감염률이 가장 높은 간흡충은 간내 담관에 기생하며 상복부 통증, 발열을 유발하고, 담관염, 담석, 간경화, 담관암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예방과 조기 진단이 요구된다.

검사 희망자는 거주 지역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을 방문해 장내 기생충 검사 사전 신청과 대변통을 수령한 후, 발발 크기 양의 변을 대변통에 담아 수령지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수거된 검체를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 총 12종의 장내 기생충 감염 여부를 검사하며, 검사 결과 양성 판정자에게는 치료제를 무료로 제공하고, 투약 후 3개월 내 재검사를 통해 완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광양 ‘야외도서관’ 오는 12일 운영

도서관의 날 맞아 ‘공원에愛서書’ 행사 개최

광양시가 ‘도서관의 날’을 기념해 오는 12일 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자연과 책이 어우러진 ‘광양야외도서관-공원에愛서書’ 행사를 개최한다.

‘광양야외도서관-공원에愛서書’ 행사는 시민들에게 도서관의 새로운 모습을 소개하고 일상 속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큰 호응을 얻었던 광양희망도서관의 ‘썬타람 책뜰’ 행사를 기반 모델로 삼아 시립도서관 7개관의 공동 참여 행사로 확대 운영되는 만큼,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양시민광장 잔디밭에 마련된 야외도서관은 빈책 소파, 피크닉 매트,

책방구니 등으로 꾸며진 도심 속 힐링 독서 공간으로, 오는 1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영유아(13개월~초등 1학년) 및 시니어(60세 이상)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배부한다. 오는 13일부터는 희망, 용강, 중마, 금호도서관 4곳에서 책꾸러미를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단순한 독서를 넘어 몰입과 체험을 강조한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를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책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으로,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디지털에서 잠시 벗어난 내안의 시간’을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광양=조순익 기자

구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마을도면 제작

17개 마을회관에 배부

구례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양정지구 등 9개 사업지구의 마을도면을 제작해 해당 지구 17개 마을회관에 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되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자료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사용은 물론 분절 해소,

정형화, 땅지 해소 등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제작된 마을도면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적도와 드론 촬영 영상 및 위성지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마을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며, 반듯해진 지적도를 공개함으로써 추후 진행될 지적재조사사업의 홍보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례=오광범 기자

광양시의회, 임시회 개최 ‘12건 안건 심사’

오는 14일까지 7일간 일정... 총무위 9건·산전위 3건



광양시의회는 8일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7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4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주요 심사 안건으로는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 ▲광양시 장애인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등을 포함되

어 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휴업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또한, 지난 4월 2일 실시된 광양시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돈견 의원의 의원 선서가 진행되며 새로운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재난 대응과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순천 “국가정원서 몸·마음 치유하세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 ‘정원치방 프로그램’ 시작

순천시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정원치방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정원치방 프로그램’은 순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식물과 교감하고 에너지를 받는 실내·외 가드닝을 통해 맞춤형 정원치방을 제공하며, 참여자들이 자연속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첫 진행될 최근 강에서는 참여자들과 강사진이 서로 소개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상 속 정원정원 모형 만들기’ 놀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인지 및 행동능력을 관찰하고, 이후 개인의 활

동 수준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원을 가꾸는 것을 넘어 자연과 깊이 교감하며 자연을 내 안에 들이는 ‘정원유희’를 경험하길 바란다”며 “정원치방·녹색치방을 통해 민생질환을 관리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12개 생애주기형·맞춤형 정원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일상 속 정원정원 모형을 확산시키는 ‘정원유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